

Trends in Plastic Packaging Market in Australia

호주의 플라스틱 포장재시장 동향

Writer

강지선, 황성운, 황규상

호주 멜버른무역관

Contents

- I. 서론
- II. 호주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규모 및 동향
- III. 호주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규모 및 대한 수입동향
- IV. 수입정책 및 관세율
- V. 포장 관련 규제 및 생분해 플라스틱 규정
- VI. 전망 및 시사점

※ KOTRA 글로벌원도우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I. 서론

호주의 플라스틱 포장재는 내수시장의 50%를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식품산업,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업, 소매업, 물류업의 성장에 따라 포장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에서의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호주의 주요 수입국 중 2017년 3분기까지의 수입량이 전년도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품질과 가격 면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제품시장이 성장 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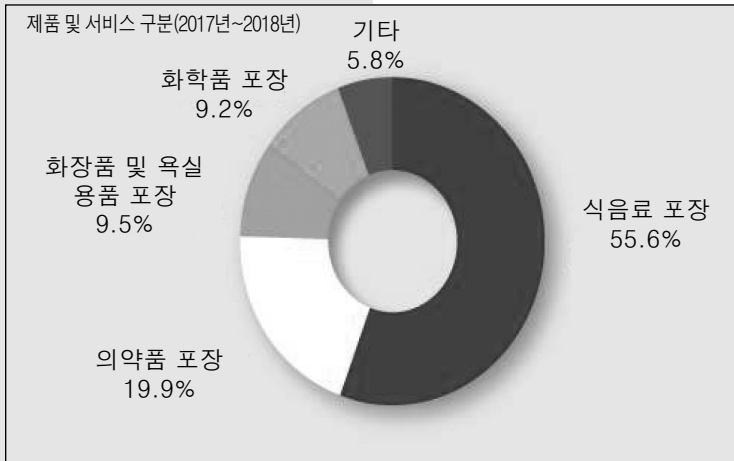
II. 호주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규모 및 동향

IBIS World 보고서에 따르면 포장서비스(Packaging Service)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7년에서 2018년 기준 41억 호주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식음료포장시장(Food and Beverage Packaging)의 경우 전체 시장의 약 55.6%로 약 22.5억 호주달러를 차지했다.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목적의 식음료 포장산업은 국토가 넓은 호주 도소매산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 내 제조업시장의 하락으로 타격을 받은 제조업체들은 패키징과 같은 비 핵심적 활동을 아웃 소싱하며 비용을 절감, 가격

[그림 1] 호주 포장산업 규모



[자료원 : IBIS World Australia]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2018년 5년간 연간 성장률은 1.0%를 기록하며 41억 호주달러에 이르렀다. 한편, 플라스틱 및 제지 가격 상

승에 따른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포장서비스산업은 자동화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틈새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SME)은 소형 포장 주문 물량

을 수용하는 전략으로 업계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III. 호주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규모 및 대한 수입동향

2015~2017년 3분기까지 호주의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 상위 10개국에 대한 통계는 [표 1]과 같다. 2017년 3분기까지의 전체 수입총액은 1억 2,023만 달러이며, 중국(44.34%), 뉴질랜드(16.62%), 미국(7.98%), 말레이시아(7.18%) 순으로 높다. 지난 3년간 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50%에

[표 2] 호주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통계(HS Code 3923.90)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17/16)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전체	121.39	117.28	110.23	100	100	100	-6.01
1	중국	59.89	56.61	48.87	49.34	48.27	44.34	-13.68
2	뉴질랜드	22.12	20.44	18.32	18.22	17.43	16.62	-10.39
3	미국	7.26	7.94	8.79	5.98	6.77	7.98	10.67
4	말레이시아	7.32	7.01	7.91	6.03	5.97	7.18	12.87
5	태국	8.06	7.92	5.39	6.64	6.75	4.89	-31.95
6	대만	2.85	2.87	2.98	2.35	2.45	2.7	3.72
7	프랑스	0.83	1.12	1.97	0.68	0.96	1.79	75.43
8	한국	0.60	0.67	1.92	0.49	0.58	1.74	184.85
9	이탈리아	1.53	1.32	1.75	1.26	1.13	1.59	32.28
10	일본	1.27	1.08	1.59	1.05	0.92	1.44	47.64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가까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나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에서의 수입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현지 시장에서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6년 같은 기간에 67만 달러가 수입된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92만 달러가 수입됐다. 호주에서 플라스틱 패키지 필름과 백을 유통하는 P사의 구매담당자에 따르면, 고사양을 요구하는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업, 농업용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IV. 경쟁 동향

호주 시장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공급하는 제조사는 총 278개사이며, 4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고사양 및 특수 필름의 경우 현지 제조사와 글로벌 기업의

[그림 2] 산소흡수제 유통구조



활약이 두드러지며, 저가 필름 및 플라스틱 백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품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및 대만 등 아시아 제조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가운데, 육포 제조업체와 과채류 유통업체, 건강보조식품 제약업체의 산소흡수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호주 내 수입·유통업체는 Alchemy Performance Packaging, EFCA 등이 있다.

육포의 경우, 대규모 유통 제조업체가 많은 미국의 육포업체와는 달리, 호주 시장 내는 소규모, 지역 특산물 육포 업체가 많다.


농업이 발달한 호주인만큼 대

형 과채류 유통업체가 많이 있다. yarra valley farms, Australia Fruits PTY LTD, barham avocados 등으로, 특히 바나나와 아보카도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해야하는 액티브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수입정책 및 관세율

HS Code 3824 (Chem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제품군은 수입에 있어 특별한 수입 통관 절차는 필요 없지만, 호주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Australian Safety Standard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Australia Standards 기준으로 설계 및 생산되어진 제품

[표 2] 호주 주요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업체

기업명	특징
 Amcor	- 홈페이지: www.amcor.com - 1986년에 설립된 호주 패키징 제조사로 멜버른에 본사 - 주로 식품, 음료, 의약품, 담배 산업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름·백·병을 전문 생산 - 전 세계 43개국에 3만 5,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Sealed Air Australia	- 홈페이지: www.sealedair.com - 미국계 글로벌 기업인 Sealed Air Corporation의 호주 지사 - 식품 포장과 유통에 사용되는 특수 필름을 제조 - Cryovac 브랜드로 진공 스킨 패키징 필름, 트레이, 뚜껑 등 공급
 Integrated Packaing	- 홈페이지: www.integratedpackaging.com.au - 호주 플라스틱 스트레치 필름 전문 제조기업으로 1982년에 설립 - 주로 농업, 원예업, 식품가공, 물류용 스트레치, 압축, PVC 식품용 랩 필름을 현지 공장에서 생산 - 뉴질랜드, 북미 시장에 진출
 Vicpac Flexibles Australia	- 홈페이지: www.vicpac.com.au - 호주 멜버른에 설립된 플라스틱 패키징 제조사로 호주와 해외에 생산 공장 위치 - 택배용 봉투, 프린트된 패키징 필름, 파우치, 증거보관용 백을 공급 - 주요 고객사는 호주 우체국, 콰타스 항공, 네슬레 식품, 에어 익스프레스 등임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및 IBIS World]

이 대다수이다 (참고 : www.standards.org.au).

HS Code 3824 (Chem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제품군의 관세율은 기준세율 5% (한-호 FTA 양허유형 0) 이고, 호주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수입자는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할 수 있다.

한편 HS Code 3923.90 (Plastic Packagings) 의 관세율은 0% (한-호주 FTA세율) 이다.

V. 포장 관련 규제 및 생분해 플라스틱 규정



현재 호주의 8개 주 중에서 남호주, 태즈메니아주, 북부준주, 수도준주(퀸버라)에서는 이미 주정부 차원에서 1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퀸즐랜드주, 빅토리아주, 서호주가 내년부터 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호주는 생분해 및 친환경 제품과 관련한 특별한 수입장벽은 없으나 호주 인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호주 인증기관인

Standards Australia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biodegradable plastics) 관련 규정은 2가지로 나뉜다. 테스트를 거쳐 인증 취득 후 해당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통용된다.



[표 3] 호주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규정

인증번호	내용
 AS 4736-2006	- 비료처리 및 미생물 분해용 생분해 플라스틱 (Biodegradable Plastics Suitable for Composting and other Microbial Treatment)
 AS 5810-2010	- 가정 비료처리용 생분해 플라스틱 (Biodegradable plastics suitable for home composting)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및 IBIS World]

[표 4] 호주 관련 인증기관

기관명	Sai Global Korea	Australasian Bioplastics Association
주요 활동	호주 인증기관	호주바이오플라스틱협회 · 인증기관
사이트	www.saiglobal.com	www.bioplastics.org.au
E-mail	korea@saiglobal.com	info@bioplastics.org.au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및 IBIS World]

VI. 전망 및 시사점

호주 정부의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한 개인과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플라스틱 포장재에 주목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실제로 생분해 플라스틱 쓰레기봉지, 박스·파렛트 포장용 스트레치 랩, 애완견 배변봉지, 일회용 장갑 등을 유통하는 업체가 증가했다.

강지선 호주 멜버른무역관은 “현지 시장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트렌드 파악이 중요하다”며 “플라스틱 필름이 많이 사용되는 식품산업에서 VSP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기업에서는 가격 면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품과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저가형 제품보다는 고사양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만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기업의 대표는 “호주에서는 쓰레

기 대부분이 매립되고 있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가정용 및 상업용 쓰레기봉지,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백 위주로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이 공급되고 있지만 앞으로 플라스틱 전체 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지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테스트와 인증을 받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